

◇농흉의 외과적 치료

윤경찬, 박창권, 유영선, 최세영, 이광숙

계명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

배경 및 목적 : 농흉은 흉막강내에 화농성감염으로 인한 농성 액체가 저류된 상태를 말하며, 항생제 및 항결핵제의 발달에 따라 그 발병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. 그러나 발병원인이 다양하며 장기간의 투약후에도 재발하는 빈도가 높으며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요구되기도 한다. 이에 계명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농흉의 수술적치료의 결과를 관련 문헌고찰과 함께 분석하여 향후 농흉치료에 대한 더 나은 치침이 되고자 하였다.

방법 : 환자는 1984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받은 112례의 환자 중 기록열람이 가능한 76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별 분포, 임상증상, 발생부위, 선행원인질환, 세균학적 검사소견, 병리학적 소견, 술전 폐실질의 압박정도, 수술 방법, 수술 후 출혈량, 합병증, 삽관기간 및 입원기간, 치료성적 등을 비교분석하였다.

결과 : 연령별로는 10세이하가 5례[6%], 60세이상 6례[7%]를 차지하였다. 주 증상으로는 흉통 27례[35%], 호흡곤란 17례[22%], 발열 11례[14%], 기침 9례[11%] 등이었고, 선행원인질환으로는 폐결핵 34례[45%],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30례[39%] 등이었다. 세균학적 검사상 51례[61%]에서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았고, 결핵균이 10례[13%], 장내구균이 5례[6%] 등이었다. 술전 폐실질의 압박 정도는 Rhea분류상 I군 35례[46%], II군 31례[41%], III군 7례[9%]였다. 수술방법은 늑막박피술만 시행한 경우 66례, 늑막박피술 및 폐엽절제술 3례, 늑막박피술 및 폐구역절제술 2례, 늑막 및 전폐절제술 1례, 흉곽성형술 3례, Clagett씨 수술 1례였다. 수술 후 병리학적 소견은 결핵 33례[46%], 만성염증 30례[39%], 섬유화 7례, 혈관종 1례, 이물성육아종 1례로 나타났다. 입원기간은 평균 15.4일이었으며, 평균 삽관기간은 10.2일이었으며 30일이상 삽관한 경우도 4례 있었다. 수술 후 출혈량은 평균 432.74 ± 337.94ml였으며, 합병증으로는 출혈로 지혈수술을 받은 경우가 5례, 호흡기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1례, 수술 후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가 1례 있었다.

결론 : 농흉에서 수술적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[93%]에서 완치되거나 호전되었으며, 변화가 없었던 경우가 4례, 사망한 경우가 1례의 결과를 보였다.

책임저자:윤경찬(계명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) 발표자:윤경찬(계명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)